

제1절 전통복식과 의생활*

복식은 인간생활의 직접적인 표현인 까닭에 그 시대의 문화상이 반드시 반영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복식제도는 삼국시대 이래 조선 말까지 우리의 고유복식과 중국복식의 이중구조를 갖고 있었으나¹⁾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승되어온 방식이 있었다.²⁾ 이것이 곧 대다수의 서민들에 의해 이어져온 고유복식인 서민복이다. 여기에서 서민이란 아무 벼슬이 없이 농·공·상에 종사했던 평민계급의 일반 백성을 가리킨다. 우리의 고유복식이 곧 서민복식이요, 서민복식이 곧 우리의 기본복식이며 전통복식이라 할 수 있다. 전통복식 문화는 우리가 발굴, 보존하고 올바르게 계승시킬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기후조건은 아한대에서 온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복식생활을 해왔다. 우선 저고리와 바지는 신체에 딱 조이는 방식을 취하고 머리에는 관모를 쓰고 발에는 버선과 신을 신었다. 즉, 신체 전체를 피복하는 방식으로 보온을 하였다. 계절에 맞추어 동복·춘추복·하복을 구별하였고 솜옷·겹옷·홀옷의 구별도 하였다. 따로 극한의 의복으로 가죽두루마기가 있어 최근까지도 북부지방과 제주도에 그 유제가 남아 있었다. 이것은 기온이 -35~35℃를 오르내리는 기후에 적응하려는 생활의 지혜로 볼 수 있다.

또 기후 변화에 순응하는 방법으로 저고리와 손목 사이에 끼는 토시(吐手)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우량이 그리 많지 않지만 여름에는 자주 비가 와 도롱이·삿갓 등이 농민복으로 발달하였다. 삿갓은 주로 대로 만든 몸의 상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큰 관모이다. 서민의 모자인 평량자도 고려 말에 생긴 관모인데 이것도 대로 만들었다. 여기서 발달한 갓도 처음에는 죽림에다 옷을 칠하여 만들다가 나중에는 섬세한 진사립이나 말총림으로 우설을 피하기 위하여 갈모라는 기름 먹인 종이로 만든 것을 갓 위에 덧씌웠다.

치마는 여성복으로 줄곧 사용되었는데 이와 같이 길고 넓게 하체를 가리게 된 것은 우리 온돌생활의 결과에서 온 민속으로 보여진다. 온돌에 이러한 치마를 걸치고 앉으면 보온의 효과가 컸다. 남성복의 바짓부리가 넓어진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보아진다. 상대복식의 선이나 신라복식의 금색이 투영되어 여자의 회장저고리에 회장을 달아 남편이 있는 여부를 알리는 것도 우리의 민속적 특색으로 볼 만하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백의를 숭상하는 것도 염색기술이 수공업적 한계에 머물렀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민족이 지닌 순결관념에서 나온 민속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통과의례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아동복에 바지를 입히지 않는 것도 오랜 전통이다. 관례복식이나 혼례복식은 문공가례의 수용으로 국제(국상의 복제)와 유관자 복식의 혼용을 용인하는 것도 양반사회의 존재로 말미암은 우리 민족복식의 지향이라 여겨진다. 수의를 제작할 때는 문공

* 제1절은 강영의(姜榮義) 집필임.

- 1)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대출판부, 1975, 16쪽.
- 2)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출판부, 1973, 3쪽.

가례를 준용하면서 또한 우리 민속의 영혼관과 관련있는 습속이 준용되었다. 즉, 연로해지면 수의를 작성하는데 대체로 윤년이나 윤달이 든 해에 동네사람을 불러 잔치를 하듯이 수의를 작성하였다. 여기에도 하루를 넘기지 말 것이며, 꿩 때 실을 대지 말고 풀어야 하며, 작성한 수의는 때때로 꺼내보며 자랑하고 결혼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면 그것을 빌린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등의 민속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제약화 또는 규격화되어 있는 우리 복식으로 보아 형태가 다른 민속적 잔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제주도에 남아 있던 가족두루마기, 홍양호(洪良浩)의 『이계집(耳溪集)』에 나오는 함경도의 피의·가족신은 특수한 민속이기는 하나 요즈음은 볼 수 없다. 또 제주도에겐 갈옷이라 하여 옷에다 감물을 들여 비를 맞아도 빗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게 한 옷도 있었다. 서북지방에 남아 있는 방한외로서의 갓옷은 지금도 배자로서 일부 부녀자가 입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요즈음은 서구식 의복이 많이 들어와 이러한 전통도 쇠퇴해가는 현상이다. 간혹 1930년까지 갓·조바위·도포·등거리·토시·포대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점차 쇠퇴해가고, 심지어 두루마기도 젊은층에서는 마고자의 사용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³⁾

본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통복식에 관한 조사는 서민생활 속에 잔존해 있는 전통 의생활 민속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 여겨진다.

일반적으로 여복은 남복보다 보수성이 강해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⁴⁾ 생활복인 일상복은 변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전통성이 지속적으로 간직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조사대상 지역의 일상적인 의생활 모습에서는 과거 전통 사회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한복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예복이 되어버렸고, 조사 당시 조사대상자들이 입고 있는 옷들도 거의 한복이 아닌 간단한 형태의 서구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유독 순천 주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공통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 이번 조사는 의생활과 관련된 민속자료들이 소멸되기 전에 조사·정리하여 전통 문화의 이해와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조사시기는 1995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이며, 조사지역은 해룡면·별량면·상사면·서면·승주읍 그리고 통합 이전의 순천시이다. 조사방법은 그 마을의 노인정을 방문하여 그룹으로 면담하거나, 구술하는 것을 받아 적는 방법을 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60명이었는데 연령은 83%가 60세 이상인 노인으로, 가업은 42%가 농업으로 대다수(92%)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왔다. 이들의 가족상황은 부양자녀가 없는 부부가 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신(27%), 부양자녀를 거느린 부부, 대가족 순이었다.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한옥이 72%로 가장 많고, 학력은 무학력이 53.3% 국졸이 30%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전해들은 구전자료를 통해 일반복식, 의례복, 전통직물, 염색 순으로 정리하였다.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4, 126쪽.

4) 홍애량, 『조선의복제도연구』, 을유문화사, 1948, 21쪽.

5)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18권 5호, 1994, 148쪽.